

1. 다음 <표>는 2024년 지역별 보훈병원 의료진 정원과 현원에 관한 자료이다. 제시된 <표> 이외에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 추가로 필요한 자료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표〉 2024년 지역별 보훈병원 의료진 정원과 현원
(단위: 명)

구분 \ 지역		서울	부산	광주	대구	대전	인천	전체
전문직	정원	210	69	72	61	53	25	490
	현원	195	69	69	56	44	20	453
전공직	정원	153	26	23	12	12	0	226
	현원	52	5	2	1	0	0	60
간호직	정원	808	347	366	293	239	118	2,171
	현원	924	396	418	313	267	109	2,427

$$\text{※ 결원율(\%)} = \frac{\text{정원} - \text{현원}}{\text{정원}} \times 100$$

단, 현원이 정원을 초과한 경우 또는 정원이 0인 경우 결원율은 0으로 함.

- <보고서>

2024년 보훈병원 의료진 전체 정원과 현원을 살펴보면, 간호직의 경우 정원 2,171명, 현원 2,427명으로 현원이 정원을 초과하였다. 그러나 전문의는 정원 490명, 현원 453명으로 현원이 정원에 미치지 못하였으며, 특히 전공의는 정원 226명, 현원 60명으로 결원율이 매우 높았다.

2024년 전문의 현원 1명당 연간 진료인원은 대전 10.3천 명, 대구 9.8천 명으로 전문의의 업무 부담이 과중한 것으로 나타나 보훈병원 의료진 부족 문제가 제기되는 상황이다.

연도별 전공의 결원율은 2020년 15 %에서 2022년 20 %, 2024년 73 %로 점차 악화되고 있다. 특히나 2020년 대비 2024년 전공의 현원이 70 %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공의가 부족할 경우 의료공백 문제가 발생하거나 보훈병원 전문 의료인력 양성에 차질이 생길 수 있으므로 보다 적극적인 유인방안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 <보 기>

7. 2020 ~ 2023년 연도별 보훈병원 전공의 정원과 현원
(단위: 명)

구분 \ 연도	2020	2021	2022	2023
정원	234	225	221	219
현원	198	183	176	169

- 나. 2024년 지역별 보훈병원 진료인원 (단위: 천 명)

지역	서울	부산	광주	대구	대전	인천	전체
진료인원	1,420	673	661	551	455	192	3,952

- ㉔. 2024년 지역별 보훈병원 의료진 결원율 (단위: %)

지역 구분	서울	부산	광주	대구	대전	인천	전체
전문의	7	0	4	8	17	20	8
전공의	66	81	91	92	100	0	73
간호직	0	0	0	0	0	8	0

- ① \neg
② \neg
③ \neg, \neg
④ \neg, \neg
⑤ \neg, \neg

2. 다음 <표>는 2025년 ‘갑’국 반력견주와 반력묘주의 성별 및 연령대별 비중에 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표〉 ‘갑’국 반려견주와 반려묘주의 성별 및 연령대별 비중
(단위: %)

구분		반려견주	반려묘주
전체		100	100
성별	남성	23.2	24.4
	여성	76.8	75.6
연령대	30대 이하	41.0	44.0
	40대 이상	59.0	56.0

—〈보기〉

- ㄱ. 반려견주 중 ‘남성’ 비중은 반려견주 중 ‘40대 이상’의 비중보다 크다.
- ㄴ. 반려견주와 반려묘주 각각에서, ‘여성’ 비중은 ‘남성’ 비중의 3배 이상이다.
- ㄷ. 반려묘주 중 ‘30대 이하’인 ‘여성’ 비중은 19 % 이상이다.

- ① \neg
② \perp
③ \neg, \perp
④ \perp, \bot
⑤ \neg, \perp, \bot

3. 다음 <표>는 ‘갑’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해외직무 경험 유무와 외교동맹 강화정책 찬반에 관해 설문조사한 결과이다. 이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표〉 해외직무 경험 유무와 외교동맹 강화정책 찬반 설문조사 결과
(단위: 명)

해외직무 경험 외교동맹 강화정책	있음	없음	합
찬성	233	()	600
반대	()	318	()
계	315	()	1,000

※ 무응답과 복수응답은 없음.

- <보기>

- ㄱ. 해외직무 경험 ‘있음’ 응답자 중 외교동맹 강화정책 ‘찬성’ 응답자의 비율은 70 % 이상이다.
- ㄴ. 해외직무 경험 ‘없음’ 응답자 중 외교동맹 강화정책 ‘찬성’ 응답자의 비율은 전체 응답자 중 외교동맹 강화정책 ‘찬성’ 응답자의 비율보다 10 %p 이상 낮다.
- ㄷ. 외교동맹 강화정책 ‘찬성’ 응답자 중 해외직무 경험 ‘있음’ 응답자의 비율은 40 % 미만이다.
- ㄹ. 외교동맹 강화정책 ‘반대’ 응답자 중 해외직무 경험 ‘있음’ 응답자의 비율은 20 % 이상이다.

- ① \neg , \perp
② \neg , \top
③ \perp , \bot
④ \neg , \top , \bot
⑤ \perp , \top , \bot

4. 다음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푸드트럭 현황에 관한 자료이다. <보고서>를 작성하는 데 사용되지 않은 자료는?

<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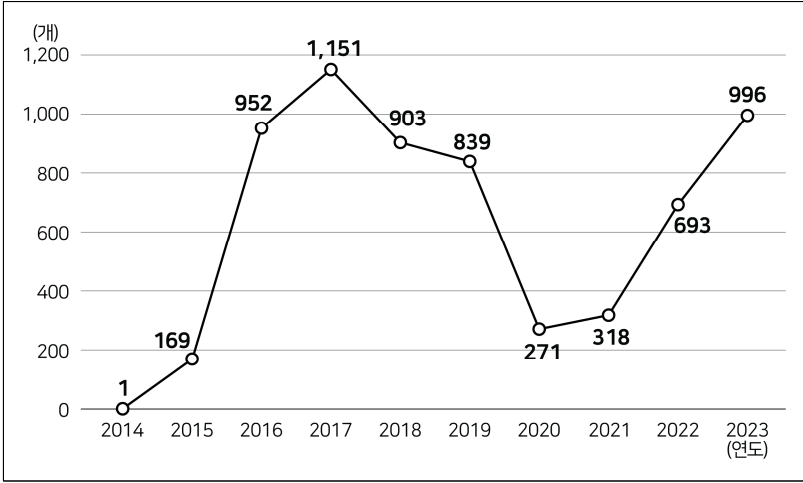
푸드트럭은 외식 분야에서 소비자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하나의 아이템으로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전 세계 푸드트럭의 시장 규모는 2022년 194억 달러에서 2027년 263억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우리나라 푸드트럭의 시장 규모는 2022년 2천억 원에서 2027년 3천억 원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된다.

우리나라에서는 2014년 12월에 처음으로 푸드트럭이 합법적인 인허가를 받았다. 2023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푸드트럭은 2,609개로 조사되었고, 특히 경기도가 608개로 전체 푸드트럭의 23.3 %를 차지하였다. 푸드트럭의 평균 영업일은 3년에 조금 못 미치는 1,079일이었다. 이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의 푸드트럭 평균 영업일이 1,829일로 가장 길었고, 서울을 비롯하여 광주, 세종, 경남의 푸드트럭 평균 영업일이 1,000일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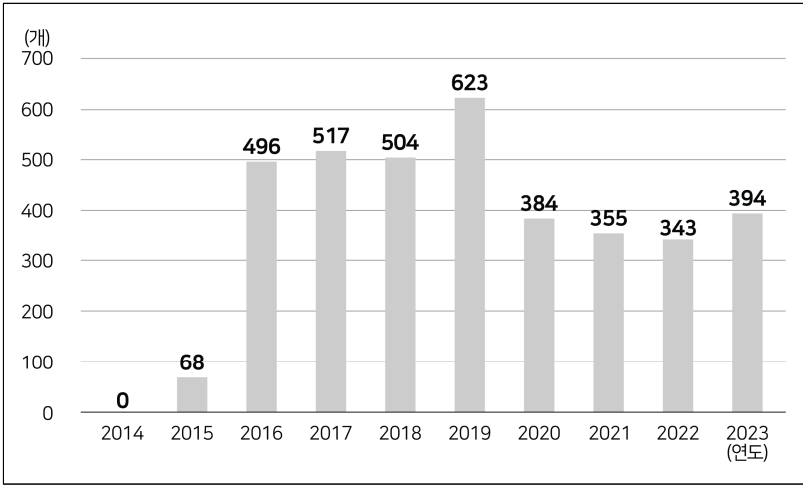
푸드트럭은 우리나라에서 청년 창업에 적합한 아이템으로 소개되면서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하였다. 2015년 169개에 불과하던 푸드트럭의 창업 수는 2016년 952개, 2017년 1,151개로 증가하였으나, 그 이후 감소하였다가 다시 증가하여 2023년에는 996개에 이르렀다.

우리나라의 폐업한 푸드트럭은 2015년 68개, 2019년 623개였으며, 이후 감소하였다가 2023년 394개로 증가하였다.

④ 우리나라 푸드트럭의 연도별 창업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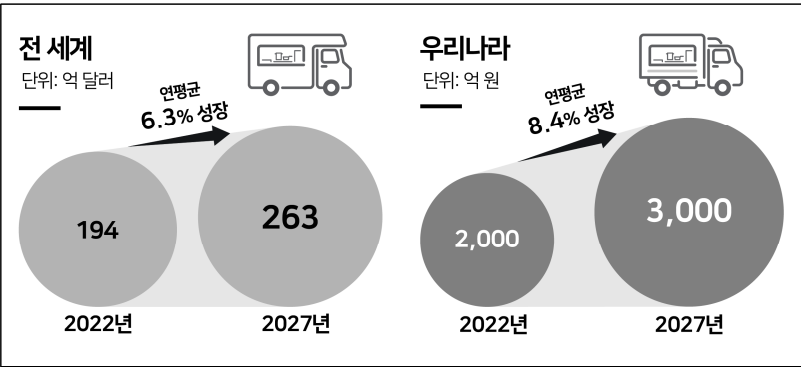
⑤ 우리나라 푸드트럭의 연도별 폐업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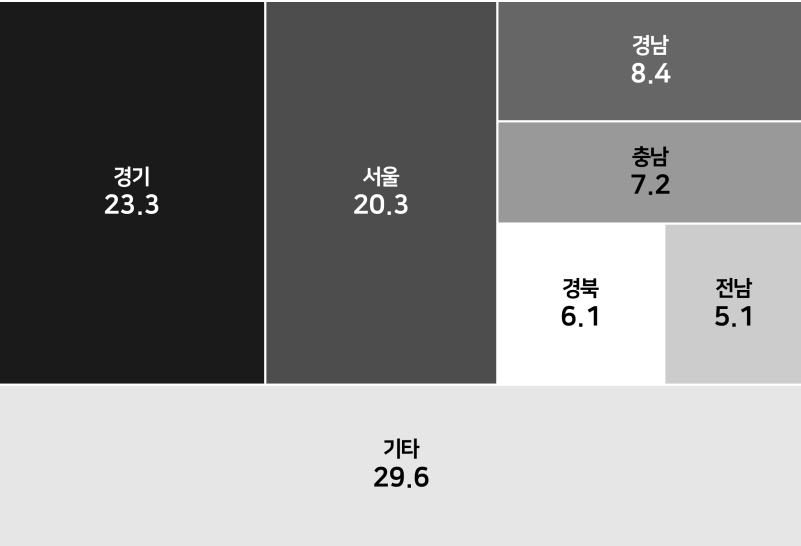
① 서울 푸드트럭의 권역별 구성비(2023년 12월 31일 기준)
(단위: %)

권역	동북권	서남권	동남권	서북권	도심권
구성비	9.1	28.9	25.1	9.2	27.7

② 2022년 대비 2027년 전 세계 및 우리나라 푸드트럭 시장 규모 전망



③ 우리나라 푸드트럭의 지역별 비중(2023년 12월 31일 기준)
(단위: %)



5. 다음 <보고서>는 2024년 우리나라 국내여행 현황에 관한 자료이다. <보고서>의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 자료는?

<보고서>

2024년 국내여행 경험률은 95.4 %로 나타났다. 여행 횟수는 2억 9천만 회 이상이고, 여행 일수는 4억 4천만 일 이상이며, 여행 지출액은 36조 원 이상이었다. 여행 경험률, 여행 횟수, 여행 일수, 여행 지출액은 2024년에 모두 전년 대비 감소하였다.

2024년 숙박시설 유형별 이용 총량 상위 5개를 비교하면, 이용 총량은 ‘가족·친지집’이 4,716만 박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펜션’, ‘호텔’, ‘콘도미니엄·리조트’, ‘모텔·여관’ 순이었다.

국내여행 시기를 ‘평일’, ‘주말’, ‘명절연휴’, ‘공휴일’로 나누어 살펴보면, 2024년 국내여행 시기별 비중은 ‘주말’이 64.6 %로 가장 크게 나타났다. 국내여행 시기별 비중을 큰 것부터 순서대로 나열하면, 2023년과 2024년의 순서는 동일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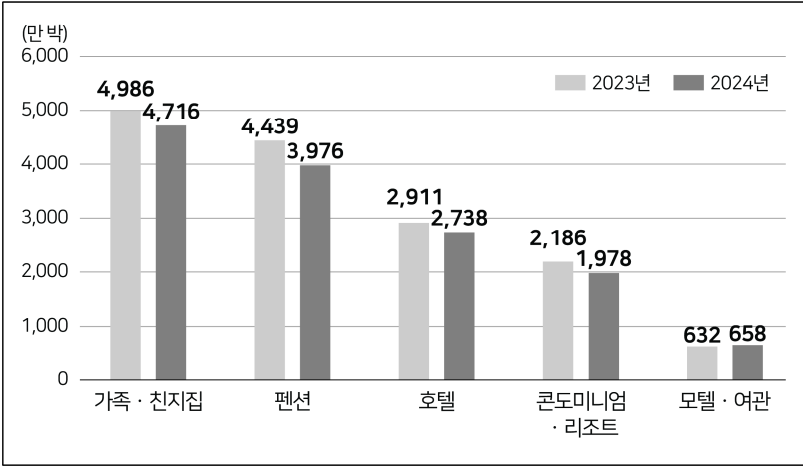
2024년 국내여행 일정에서 ‘당일’이 차지하는 비중은 60.1%로 가장 크게 나타났고, 다음은 ‘1박 2일’, ‘2박 3일’, ‘3박 이상’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4년 국내여행 일정별 비중은 ‘당일’이 전년 대비 증가하였다.

2024년 국내여행 방문 지역별 응답 비율은 ‘경기’가 21.1 %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은 ‘강원’, ‘경남’, ‘전남’, ‘경북’, ‘충남’ 순으로 나타났다.

① 2020 ~ 2024년 국내여행 통계
(단위: %, 천 회, 천 일, 십억 원)

연도	구분	여행 경험률	여행 횟수	여행 일수	여행 지출액
2020		86.4	225,199	347,876	24,121
2021		93.9	245,127	364,721	25,915
2022		94.2	283,722	443,904	34,533
2023		95.5	296,977	465,391	37,816
2024		95.4	291,825	448,498	36,8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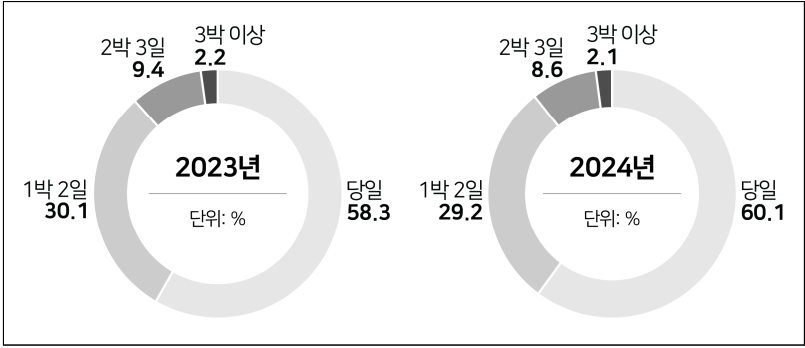
② 2024년 이용 총량 상위 5개 숙박시설 유형별 2023년과 2024년 이용 총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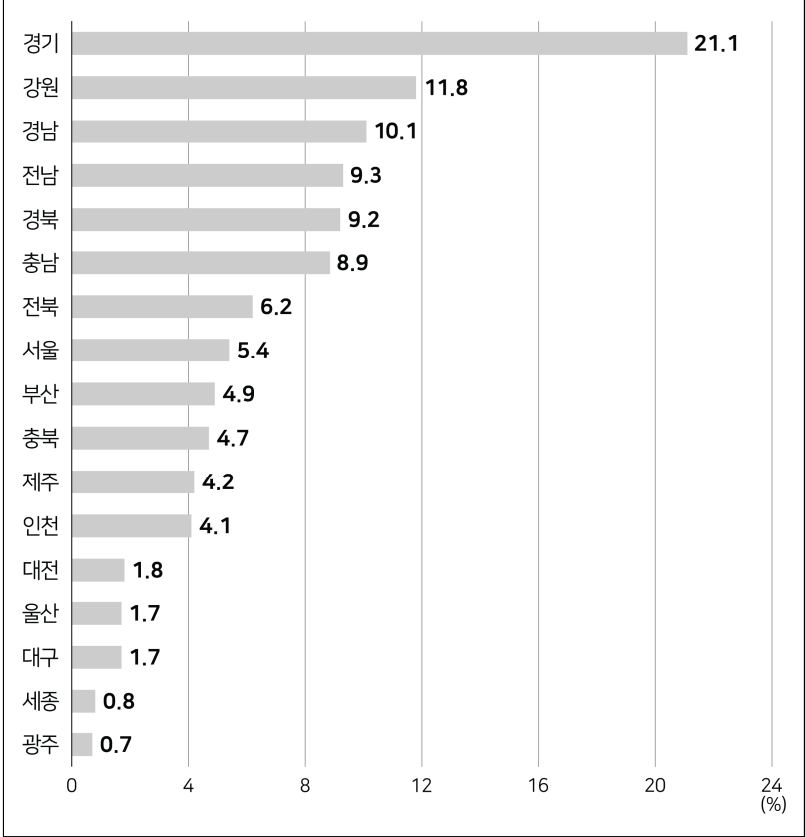
③ 2023년과 2024년 국내여행 시기별 비중
(단위: %)

연도	시기	평일	주말	명절연휴	공휴일
2023		19.5	65.2	9.1	6.2
2024		19.4	64.6	7.9	8.1

④ 2023년과 2024년 국내여행 일정별 비중



⑤ 2024년 국내여행 방문 지역별 응답 비율(중복 응답 가능)



6. 다음 <표>는 2025년 ‘갑’기관의 부서(A ~ E)별 및 직급(4 ~ 9급)별 정원과 현원에 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표 1> 부서별 정원과 현원
(단위: 명)

구분	부서	전체	A	B	C	D	E
정원		160	28	21	23	21	67
현원		159	28	22	22	21	66

<표 2> 직급별 정원과 현원
(단위: 명)

구분	직급	전체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정원		160	1	5	23	52	56	23
현원		159	1	5	23	52	52	26

※ 배치율(%) = $\frac{\text{현원}}{\text{정원}} \times 100$

<보 기>

ㄱ. 전체 현원 중 4 ~ 6급 현원의 비중은 20 % 이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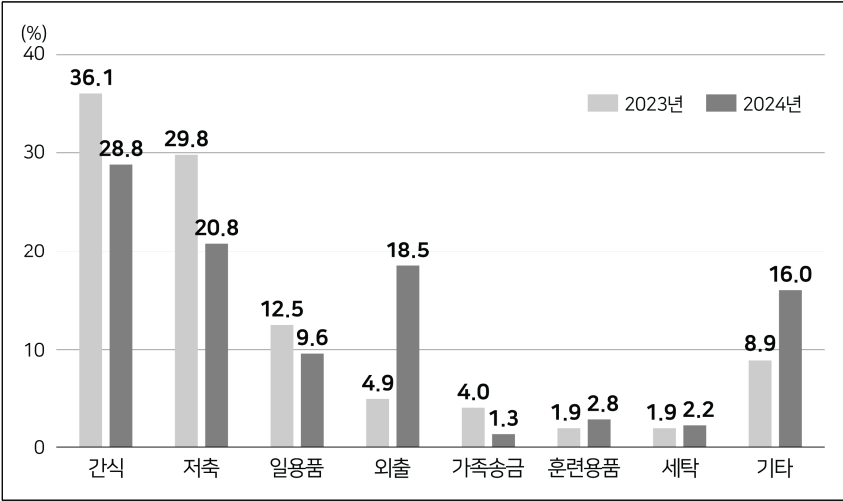
ㄴ. 배치율이 가장 높은 직급은 9급이다.

ㄷ. 배치율이 100 % 미만인 부서의 수는 배치율이 100 % 미만인 직급의 수보다 많다.

- ① ㄴ
- ② ㄷ
- ③ ㄱ, ㄴ
- ④ ㄱ, ㄷ
- ⑤ ㄱ, ㄴ, ㄷ

7. 다음은 2023 ~ 2025년 ‘갑’국 전체 병사의 생활 항목별 지출 비중에 관한 자료이다. 이를 근거로 작성한 <보고서>의 (가) ~ (다)에 해당하는 내용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그림> 2023년과 2024년 ‘갑’국 전체 병사의 생활 항목별 지출 비중



<표> 2025년 소속 군별 병사의 생활 항목별 지출 비중 (단위: %)

소속 \ 항목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전체
간식	28.4	28.2	27.8	28.7	28.3
저축	23.9	24.6	22.9	23.5	23.8
일용품	10.0	9.0	9.1	10.9	9.8
외출	22.8	22.8	27.0	17.6	22.7
가족송금	4.5	5.3	4.5	6.6	5.0
훈련용품	2.6	2.7	2.1	3.6	2.7
세탁	2.3	3.1	2.0	3.5	2.6
기타	5.5	4.3	4.6	5.6	5.1
계	100	100	100	100	100

※ ‘갑’국 병사는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중 하나에만 소속됨.

<보고서>

2023 ~ 2025년 ‘갑’국 전체 병사의 생활 항목별 지출 비중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간식 지출 비중은 매년 감소하고 있는 반면 외출, (가) 지출 비중은 각각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갑’국 전체 병사의 2023년 대비 2025년 가족송금 지출 비중 증가폭보다 큰 증가폭을 보인 항목은 기타를 제외하고 총 (나) 개였다.

2025년 ‘갑’국 4개 소속 군 각각에서 병사의 간식 지출 비중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다) 을(를) 제외한 나머지 소속 군 각각에서 저축이 두 번째로 큰 지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 | (가) | (나) | (다) |
|---|------|-----|-----|
| ① | 세탁 | 1 | 공군 |
| ② | 세탁 | 1 | 해병대 |
| ③ | 세탁 | 2 | 해병대 |
| ④ | 훈련용품 | 1 | 공군 |
| ⑤ | 훈련용품 | 2 | 해병대 |

8. 다음 <표>는 2025년 월별 재산공개자 현황에 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표> 2025년 월별 재산공개자 유형과 수 (단위: 명)

월	공개자 유형	총공개자 수
1	신규 (15), 승진 (18), 재등록 (1), 퇴직 (23), 의무면제 (1)	58
2	신규 (21), 승진 (23), 퇴직 (38), 의무면제 (3), 정기변동 (2)	87
3	신규 (17), 승진 (24), 재등록 (2), 재공개 (2), 퇴직 (59), 의무면제 (1), 정기변동 (1,718)	1,823
4	신규 (37), 승진 (21), 재등록 (2), 재공개 (4), 퇴직 (35), 의무면제 (5)	104
5	신규 (24), 승진 (9), 재등록 (4), 재공개 (1), 퇴직 (41), 의무면제 (8)	87
6	신규 (21), 승진 (10), 재공개 (3), 퇴직 (148), 의무면제 (1), 정기변동 (2)	185
7	신규 (17), 승진 (9), 재공개 (1), 퇴직 (60), 의무면제 (1)	88
8	신규 (15), 승진 (7), 퇴직 (27), 정기변동 (6)	55
9	신규 (622), 승진 (14), 재등록 (1), 재공개 (1), 퇴직 (566), 의무면제 (4)	1,208
10	신규 (25), 승진 (19), 퇴직 (19), 의무면제 (4)	67
11	신규 (20), 승진 (16), 재등록 (2), 퇴직 (28), 의무면제 (2), 정기변동 (2)	70
12	신규 (18), 승진 (11), 퇴직 (20)	49

※ 1) 괄호 안의 수치는 해당 유형의 공개자 수임.
2) 공개자는 제시된 유형 중 하나로만 분류됨.

<보 기>

- ㄱ. 총공개자 수가 다섯 번째로 많은 월은 7월이다.
- ㄴ. ‘정기변동’이 있는 월은 모두 전월 대비 총공개자 수가 증가하였다.
- ㄷ. ‘퇴직’ 대비 ‘신규’ 비율은 10월이 9월보다 높다.
- ㄹ. 4분기(10 ~ 12월) 전체 공개자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유형은 ‘승진’이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ㄹ
- ④ ㄷ, ㄹ
- ⑤ ㄱ, ㄷ, ㄹ

9. 다음 <보고서>는 ‘갭’연구소에서 항원 X에 대한 후보 항체 A ~ E의 특성을 실험·분석한 자료이다. <보고서>의 내용과 부합하는 형광 신호 강도 측정 결과는?

—<보고서>—

‘갭’연구소는 항원 X에 대한 항체를 선별하기 위해 후보 항체 A ~ E와의 결합 특성을 실험하였다. 실험방법은 형광 물질로 표지한 항체 A ~ E와 각 플레이트에 코팅된 항원 X 및 대조군(항원 Y, 항원 없음)을 반응시켜 형광 신호 강도를 측정함으로써 항원과 항체 간의 결합 정도를 분석하는 것이다. 형광 신호 강도의 단위는 ‘a.u.’이고, 측정된 값이 클수록 형광 신호 강도가 높다. 실험 결과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항원 X 플레이트에서 측정된 형광 신호 강도로 항체를 비교하면 항체 C가 가장 높았다. 항원 X 플레이트에서 형광 신호 강도가 6,000 a.u. 미만인 항체는 A뿐이었다. 항원 Y 플레이트에서 항체 B와 항체 E의 형광 신호 강도는 각각 항원 X 플레이트에서 형광 신호 강도의 75 % 이상이었다. 항원이 없는 플레이트에서 항체 E의 형광 신호 강도는 4,000 a.u. 이상으로 측정되었다.

① (단위: a.u.)

플레이트 항체	항원 X	항원 Y	항원 없음
A	4,800	3,400	700
B	7,500	5,800	900
C	9,800	1,100	800
D	6,900	1,400	900
E	8,200	6,400	4,100

② (단위: a.u.)

플레이트 항체	항원 X	항원 Y	항원 없음
A	4,800	3,500	700
B	7,600	5,200	950
C	9,800	1,000	850
D	7,200	1,400	950
E	8,500	6,600	4,400

③ (단위: a.u.)

플레이트 항체	항원 X	항원 Y	항원 없음
A	4,900	3,500	750
B	7,400	5,800	900
C	7,100	1,200	800
D	9,600	1,500	950
E	8,700	6,600	4,300

④ (단위: a.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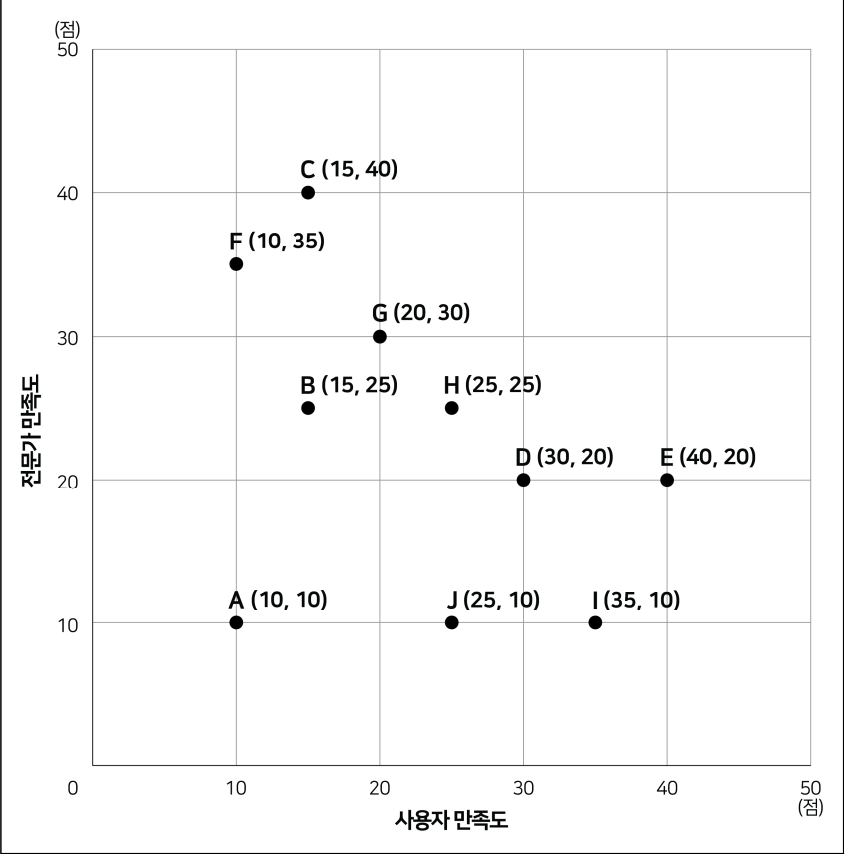
플레이트 항체	항원 X	항원 Y	항원 없음
A	5,500	3,900	900
B	8,100	6,200	1,200
C	9,200	1,100	950
D	6,700	1,700	1,000
E	8,900	6,800	3,900

⑤ (단위: a.u.)

플레이트 항체	항원 X	항원 Y	항원 없음
A	5,200	3,600	800
B	7,800	6,100	1,000
C	9,400	1,200	900
D	7,000	1,500	1,000
E	5,900	6,600	4,200

10. 다음은 게임 A ~ J에 대한 사용자와 전문가 만족도 및 ‘갭’과 ‘을’매체의 게임 평가방법이다. 이를 근거로 판단할 때, ‘갭’과 ‘을’매체의 게임 평가결과가 서로 다른 게임만을 모두 고르면?

<그림> 게임 A ~ J에 대한 사용자와 전문가 만족도



—<평가방법>—

- ‘갭’매체의 게임 평가점수 = 2 × 사용자 만족도 + 1 × 전문가 만족도
- ‘을’매체의 게임 평가점수 = 1 × 사용자 만족도 + 2 × 전문가 만족도
- ‘갭’(‘을’)매체의 게임 평가결과는 ‘갭’(‘을’)매체의 게임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이면 ‘추천’, 60점 미만이면 ‘보류’이다.


- ① B, C, F, G
- ② B, D, E, H
- ③ B, E, I, J
- ④ B, F, I, J
- ⑤ D, E, G, H

11. 다음은 2025년 무궁화시 하천 A ~ E의 안전시설 현황에 관한 자료이다. 이를 근거로 판단할 때, A ~ E 중 ‘갑’에 해당하는 하천은?

<표> 2025년 무궁화시 하천 A ~ E의 안전시설 현황
(단위: 개)


하천	안전시설 설치위치	CCTV			안전난간			구명환	부표
		계	좌안	우안	계	교량	교량 외		
A		5	4	1	17	1	16	10	1
B		30	20	10	101	4	97	45	4
C		21	4	17	109	6	103	1	22
D		22	13	9	23	2	21	41	9
E		21	11	10	58	3	55	21	12

※ 무궁화시 하천은 A ~ E뿐임.



무궁화시
Mugunghwa City

보도자료



안전한 무궁화시

배포일시	2025. 06. 02. (월)	담당부서	시설과 안전팀
담당과장	조안전 (0□□-200-0001)	담당자	사무관 윤제일 (0□□-200-0002)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궁화시, 물놀이철 앞두고 대대적 하천 안전시설 점검 나서 ...

무궁화시는 물놀이철을 앞두고 ‘갑’하천을 포함한 관내 5개 하천(A ~ E)에 설치된 안전시설을 대대적으로 점검했다고 알렸다. 안전시설 점검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갑’하천의 설치위치별 CCTV는 좌안이 우안보다 많았다. 또한, ‘갑’하천 좌안에 설치된 CCTV는 무궁화시 하천 좌안에 설치된 전체 CCTV의 20 % 이상이었다.

‘갑’하천의 부표 수는 무궁화시 하천의 부표 수 평균보다 적었다. 또한, ‘갑’하천에 설치된 안전난간 중 교량에 설치된 안전난간의 비중은 6 % 미만이었다.

- ① A
- ② B
- ③ C
- ④ D
- ⑤ E

12. 다음 <표>는 A 프로세서의 동작 주파수와 공급 전압에 따른 온도 및 소비전력을 측정한 자료이다. 이를 근거로 작성한 <보고서>의 내용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표> A 프로세서의 동작 주파수와 공급 전압에 따른 온도 및 소비전력
(단위: V, °C, W)

공급 전압	동작 주파수	3.4 GHz		4.4 GHz	
	구분	온도	소비전력	온도	소비전력
	0.90	53.7	112.0	—	—
	0.95	56.9	118.9	—	—
	1.00	58.5	123.1	—	—
	1.05	62.4	130.6	64.5	138.6
	1.10	64.6	139.3	68.7	146.2
	1.15	68.2	147.2	74.9	158.7
	1.20	73.3	158.4	79.5	169.4
	1.25	80.1	168.0	87.0	180.1
	1.30	89.7	179.8	92.3	197.8

<보고서>

A 프로세서에서 공급 전압에 따른 온도와 소비전력의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 공급 전압을 0.90 V에서 1.30 V까지 0.05 V씩 높이면서 온도와 소비전력을 측정하였다. 동작 주파수가 3.4 GHz일 때, ㉠공급 전압을 0.05 V씩 높일 때마다 온도는 최소 1.6 °C, 최대 7.5 °C 올라갔다. 또한, ㉡공급 전압을 0.05 V씩 높일 때마다 측정한 소비전력 변화량 8개 값의 평균은 9.0 W 이상이었다.

다음으로 동작 주파수가 4.4 GHz일 때, 공급 전압이 1.00 V 이하에서는 A 프로세서가 정상 동작하지 않아 공급 전압이 1.05 V 이상일 때만 온도와 소비전력을 측정하였다. 측정 결과, ㉢공급 전압 1.30 V에서 측정한 온도와 소비전력은 1.05 V일 때에 비해 모두 40 % 이상 증가하였다.

- ① ㉠
- ② ㉡
- ③ ㉢
- ④ ㉠, ㉡
- ⑤ ㉡, ㉢

13. 다음 <표>는 2023 ~ 2025년 ‘갑’국의 청년정책 사업별 과제와 예산 현황에 관한 자료이다. <표>와 <정보>에 근거하여 A ~ C에 해당하는 사업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표> 2023 ~ 2025년 청년정책 사업별 과제와 예산
(단위: 건, 억 원)

연도 구분 사업	2023		2024		2025	
	과제	예산	과제	예산	과제	예산
일자리	115	82,197	148	77,496	146	58,344
A	24	87,039	27	88,380	30	104,201
B	88	56,793	107	67,523	122	70,960
C	50	11,623	54	12,219	47	19,786
D	31	685	40	874	45	888

※ 청년정책 사업은 ‘교육’, ‘복지·문화’, ‘일자리’, ‘주거’, ‘참여·권리’로만 구분됨.

<정 보>

- 2024년 전년 대비 예산 증가율이 가장 높은 사업은 ‘참여·권리’이다.
- 과제 수가 매년 증가하는 사업은 ‘교육’, ‘주거’, ‘참여·권리’이다.
- 2025년 과제 1건당 예산이 전년보다 증가한 사업은 ‘복지·문화’, ‘주거’이다.

- | | | | |
|---|----------|----------|----------|
| | <u>A</u> | <u>B</u> | <u>C</u> |
| ① | 교육 | 주거 | 복지·문화 |
| ② | 교육 | 주거 | 참여·권리 |
| ③ | 복지·문화 | 교육 | 주거 |
| ④ | 복지·문화 | 교육 | 참여·권리 |
| ⑤ | 주거 | 교육 | 복지·문화 |

14. 다음 <표>는 2015 ~ 2024년 ‘갑’국의 양곡 생산량과 자급률에 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표> 2015 ~ 2024년 ‘갑’국의 양곡 생산량과 자급률
(단위: 천 톤, %)

연도	구분	생산량				자급률			
	양곡	쌀	보리	콩	옥수수	쌀	보리	콩	옥수수
2015		174	55	104	78	101.0	23.0	32.1	4.1
2016		166	52	75	74	104.7	24.6	24.6	3.7
2017		148	75	101	73	103.4	26.0	22.0	3.3
2018		154	103	106	78	97.3	32.1	25.3	3.3
2019		151	137	125	76	92.1	47.7	29.2	3.5
2020		127	98	99	92	92.9	38.2	30.4	3.6
2021		156	89	111	95	84.6	33.3	23.7	4.1
2022		144	68	130	91	104.8	29.8	28.6	4.3
2023		150	51	141	92	99.1	25.4	35.7	4.5
2024		146	37	155	91	100.2	24.9	35.7	4.6

※ 1) ‘갑’국에서 생산·소비하는 양곡은 쌀, 보리, 콩, 옥수수뿐임.

2) 자급률(%) = $\frac{\text{생산량}}{\text{소비량}} \times 100$

- ① 소비량은 옥수수가 매년 가장 많다.
- ② 2024년 쌀 소비량은 전년 대비 증가하였다.
- ③ 양곡 생산량 중 보리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년 25 % 미만이다.
- ④ 쌀 소비량보다 쌀 생산량이 많은 연도에는 보리 생산량이 7만 톤 미만이다.
- ⑤ 2017년 이후 콩 자급률은 매년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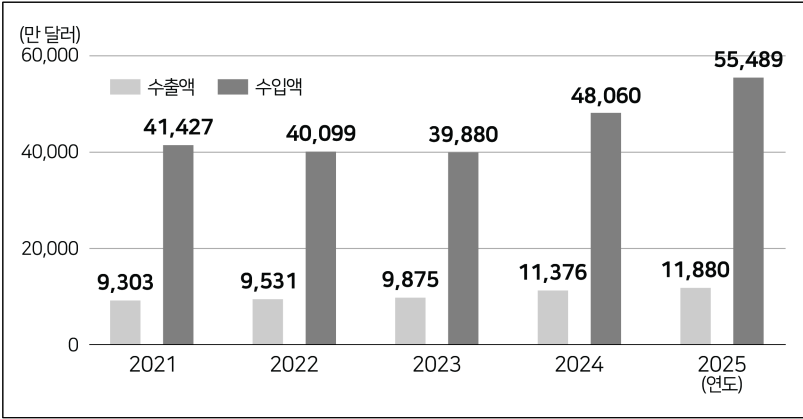
15. 다음 <표>는 2021 ~ 2025년 ‘갑’국 전체 상품 및 섬유류 수출입액에 관한 자료이다. 이를 이용하여 작성한 그래프로 옳지 않은 것은?

<표> 2021 ~ 2025년 ‘갑’국 전체 상품 및 섬유류 수출입액
(단위: 만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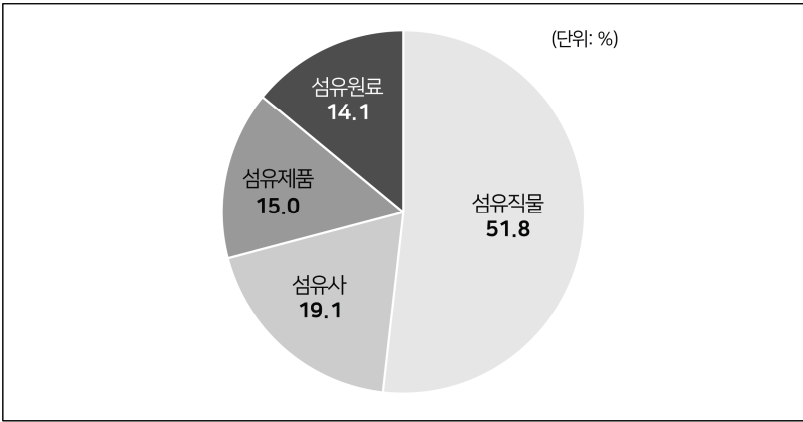
구분 \ 연도		2021	2022	2023	2024	2025
수출액	전체 상품	604,860	542,233	512,498	644,400	683,585
	섬유류	9,303	9,531	9,875	11,376	11,880
	섬유직물	5,985	6,146	6,675	7,538	7,689
	섬유사	417	461	495	549	536
	섬유원료	524	419	393	464	505
	섬유제품	2,377	2,505	2,312	2,825	3,150
	섬유제품	2,377	2,505	2,312	2,825	3,150
수입액	전체 상품	535,202	503,343	467,633	615,093	731,370
	섬유류	41,427	40,099	39,880	48,060	55,489
	섬유직물	19,903	19,876	20,664	25,280	29,722
	섬유사	7,522	7,786	7,612	9,159	10,997
	섬유원료	7,877	6,643	5,983	7,439	7,811
	섬유제품	6,125	5,794	5,621	6,182	6,959
	섬유제품	6,125	5,794	5,621	6,182	6,959

※ 무역수지 = 수출액 - 수입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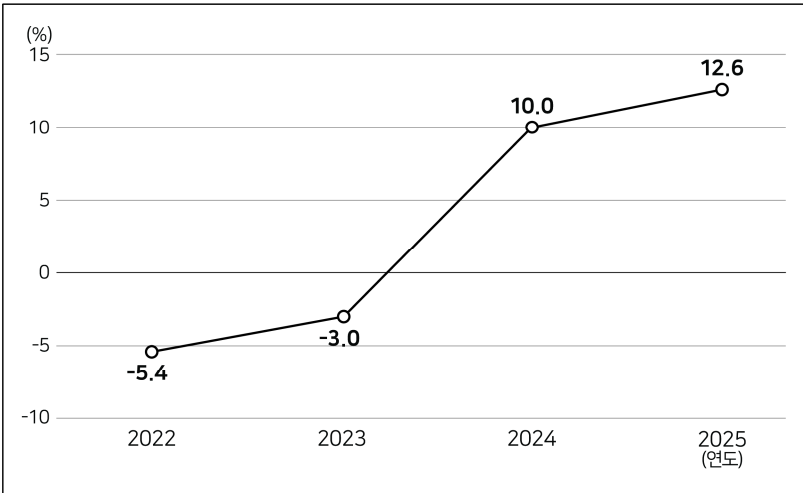
① 연도별 섬유류 수출액과 수입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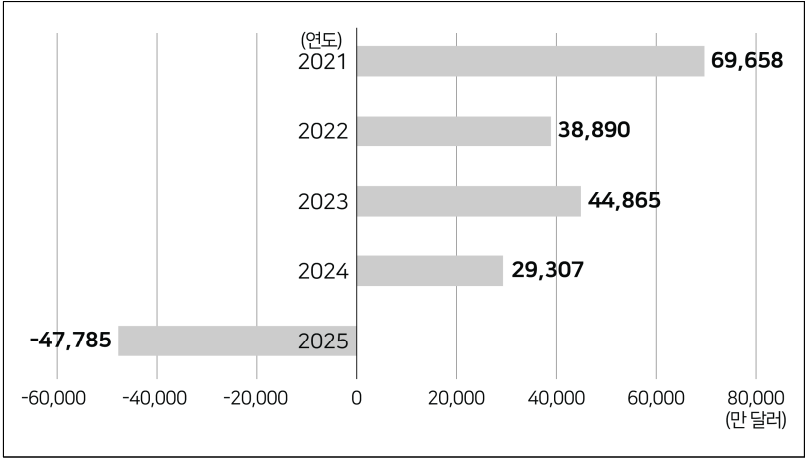
② 2025년 섬유류 수입액 구성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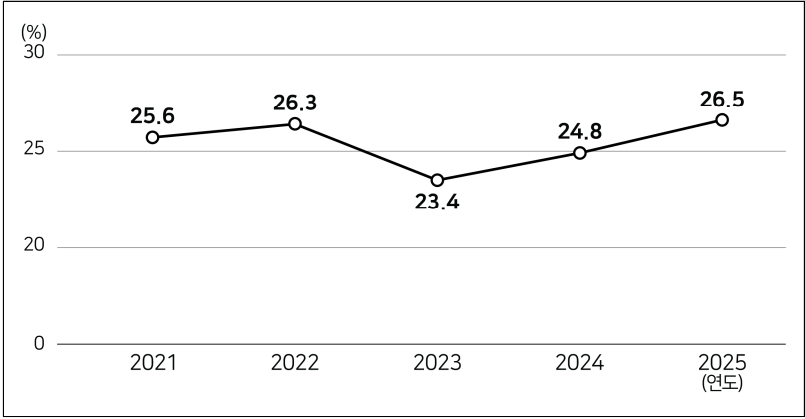
③ 2022 ~ 2025년 섬유제품 수입액의 전년 대비 증가율



④ 연도별 전체 상품 무역수지



⑤ 연도별 섬유류 수출액에서 섬유제품이 차지하는 비중



16. 다음 <표>는 2025년 국가 A ~ D의 무역 관련 주요 통계에 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표> 국가 A ~ D의 무역 관련 주요 통계

구분 \ 국가	수출액 (십억 달러)	수입액 (십억 달러)	인구 (백만 명)	인구 1인당 GDP (천 달러)
A	1,277	1,968	310.4	41.6
B	769	694	126.5	31.6
C	1,969	1,832	1,318.2	7.7
D	373	217	143.0	16.6

- ※ 1) 무역개방도(%) = $\frac{\text{수출액} + \text{수입액}}{\text{GDP}} \times 100$
2) 무역규모 = 수출액 + 수입액
3) 무역수지 = 수출액 - 수입액

- ① 수출액은 C가 A의 1.5배 이상이다.
② 무역개방도는 B가 D보다 높다.
③ 무역규모가 가장 큰 국가는 C이다.
④ GDP 대비 무역수지의 비율은 D가 C보다 높다.
⑤ A의 무역개방도는 20 % 미만이다.

17. 다음 <표>는 라틴아메리카 지폐 172종의 전면 및 후면 도안 주제별 지폐 종수에 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표> 라틴아메리카 지폐의 전면 및 후면 도안 주제별 지폐 종수
(단위: 종)

전면 후면	추상	인물	건축	역사	산업	예술	자연	기타	합
추상	()	0	0	0	0	0	0	0	()
인물	1	2	0	0	0	0	0	0	3
건축	8	45	2	0	0	0	4	0	59
역사	0	()	1	3	0	0	1	0	()
산업	2	5	0	0	()	0	0	0	7
예술	0	6	3	0	0	1	0	0	10
자연	1	41	6	2	0	0	()	0	57
기타	1	4	0	0	0	0	0	0	5
계	13	()	()	5	()	1	12	0	172

※ 지폐 종별 전면 및 후면 도안에 활용된 주제는 각각 1가지임.

<보 기>

- ㄱ. 전면 도안 주제가 ‘인물’인 지폐 종수는 후면 도안 주제가 ‘역사’인 지폐 종수의 4배 이상이다.
- ㄴ. 전면과 후면의 도안 주제가 동일한 지폐 종수는 전체 지폐 종수의 10 % 이상이다.
- ㄷ. ‘예술’과 ‘자연’이 한 지폐에 함께 도안 주제로 활용된 지폐 종은 없다.
- ㄹ. ‘건축’은 70종 이상의 지폐에서 도안 주제로 활용되었다.

- ① ㄱ, ㄷ
- ② ㄱ, ㄹ
- ③ ㄴ, ㄷ
- ④ ㄴ, ㄹ
- ⑤ ㄱ, ㄷ, ㄹ

18. 다음 <표>는 2022년과 2024년 ‘갑’국 청년 1인당 가상자산 보유액에 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표> 2022년과 2024년 청년 1인당 가상자산 보유액
(단위: 만 원)

구분		연도	2022	2024
전체			25	28
성별	남성		36	38
	여성		11	17
지역	수도권		26	22
	비수도권		23	36
학력	고졸 이하		20	29
	대학 재학·휴학		7	4
	대졸 이상		32	36

※ 청년 1인당 가상자산 보유액은 해당 구분에 속하는 청년이 보유한 가상자산의 합을 해당 구분에서 가상자산을 보유한 청년 수로 나눈 값임.

<보 기>

- ㄱ. 2024년 가상자산을 보유한 청년의 수는 남성이 여성의 1.5배 이상이다.
- ㄴ. 2024년 청년 1인당 가상자산 보유액은 비수도권이 수도권의 1.5배 이상이다.
- ㄷ. 대졸 이상 청년이 보유한 가상자산의 합이 2022년과 2024년에 같다면, 2024년 가상자산을 보유한 대졸 이상 청년 수는 2022년 대비 8 % 이상 감소한다.

- ① ㄱ
- ② ㄴ
- ③ ㄷ
- ④ ㄱ, ㄴ
- ⑤ ㄴ, ㄷ

19. 다음 <표>는 2022 ~ 2024년 우리나라 유실·유기동물 구조 현황에 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표 1> 2022년과 2023년 전국 유실·유기동물 구조 현황
(단위: 마리)

연도\구분	구조동물 수	개		
		개	고양이	기타
2022	113,440	80,393	31,525	1,522
2023	113,072	80,467	30,889	1,716

<표 2> 2024년 지역별 유실·유기동물 구조 현황
(단위: 마리)

지역	구분	구조동물 수	개	고양이	기타
	전국	106,824	77,304	27,826	1,694
	서울	4,671	2,242	2,084	345
	부산	5,020	2,173	2,740	107
	대구	4,419	1,821	2,532	66
	인천	5,601	3,074	2,410	117
	광주	2,551	1,236	1,270	45
	대전	1,590	1,218	337	35
	울산	2,889	1,354	1,502	33
	세종	468	359	100	9
	경기	20,946	15,770	4,797	379
	강원	5,228	3,905	1,289	34
	충북	4,297	3,239	841	217
	충남	9,063	7,554	1,372	137
	전북	8,795	6,511	2,247	37
	전남	9,416	8,009	1,346	61
	경북	8,617	7,516	1,073	28
	경남	9,345	8,157	1,164	24
	제주	3,908	3,166	722	20

- ① 2024년 구조된 개의 수와 고양이의 수가 각각 두 번째로 적은 지역은 동일하다.
- ② 2024년 전국 구조동물 수 중 고양이가 차지하는 비중은 25 % 미만이다.
- ③ 전국에서 구조된 개의 수는 매년 증가하였다.
- ④ 2024년 구조동물 수는 경기도 전국의 20 % 이상이다.
- ⑤ 2023년 대비 2024년 전국에서 구조된 동물 수의 감소폭은 개가 고양이보다 작다.

20. 다음은 2025년 ‘갑’기관의 홍보대사 인원예 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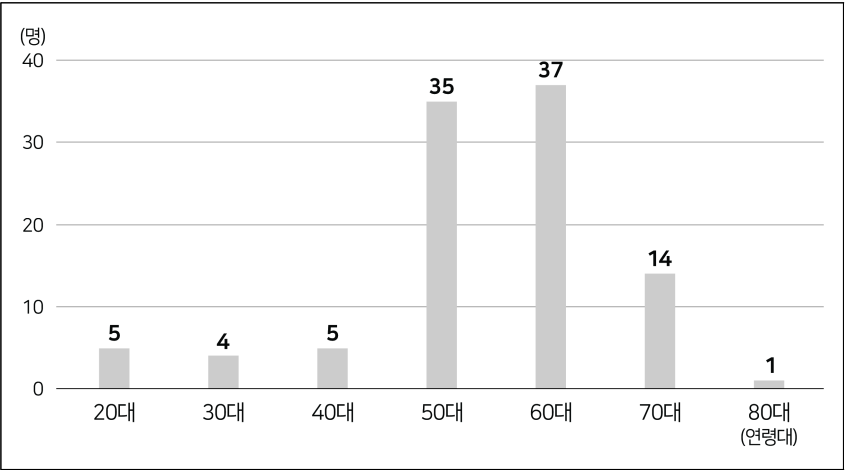
<표 1> 성별 홍보대사 인원
(단위: 명)

성별	남성	여성	전체
인원	56	45	101

<표 2> 국적별 홍보대사 인원
(단위: 명)

국적	A	B	C	D	E	F	G	H	I	J	K	전체
인원	53	10	7	1	9	3	6	3	2	2	5	101

<그림> 연령대별 홍보대사 인원



- <보 기>
- ㄱ. 여성 홍보대사의 평균 연령은 45세 이상이다.
- ㄴ. 전체 홍보대사 인원 중 G 국적인 홍보대사 인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5 % 이상이다.
- ㄷ. A 국적인 남성 홍보대사는 8명 이상이다.
- ㄹ. 50대 이하인 홍보대사 인원이 60대 이상인 홍보대사 인원보다 많다.

- ① ㄱ, ㄴ
- ② ㄱ, ㄹ
- ③ ㄴ, ㄷ
- ④ ㄴ, ㄹ
- ⑤ ㄱ, ㄴ, ㄷ

21. 다음 <표>는 2022 ~ 2025년 ‘갑’지역의 친환경자동차 판매대수에 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표> 2022 ~ 2025년 친환경자동차 판매대수
(단위: 대)

구분 \ 연도	2022	2023	2024	2025	상반기
전체	931	869	832	()	258
전기자동차	169	167	163	()	57
하이브리드자동차	749	690	662	597	199
수소전기자동차	13	12	7	()	()

※ 친환경자동차는 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로만 분류함.

<보 기>

- ㄱ. 2022 ~ 2024년 동안 매년 하이브리드자동차 판매대수는 전체 판매대수의 80 % 이상이다.
- ㄴ. 2022년 대비 2023년 전체 판매대수 감소폭 중 하이브리드자동차 판매대수 감소폭의 비중은 90 % 이상이다.
- ㄷ. 2022년부터 2025년 상반기까지 수소전기자동차 판매대수의 합은 2025년 상반기 전기자동차 판매대수보다 많다.
- ㄹ. 2025년 하반기 전체 판매대수가 상반기 전체 판매대수의 2배라면, 2025년 전기자동차 판매대수는 175대 이하이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ㄷ
- ④ ㄴ, ㄹ
- ⑤ ㄴ, ㄷ, ㄹ

22. 다음 <표>는 2025년 ‘갑’국의 콘텐츠 산업 분야별 현황에 관한 자료이다. 이를 근거로 작성한 <보고서>의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은?

<표> 2025년 콘텐츠 산업 분야별 현황
(단위: 개, 명, 백만 원)

구분 \ 분야	사업체 수	종사자 수	매출액	수출액	수입액
출판	32,457	182,874	23,895,591	497,290	270,991
만화	4,862	13,543	2,739,495	177,957	6,404
음악	36,259	69,942	12,633,331	1,222,535	16,971
영화	6,872	31,403	5,903,094	56,291	48,846
게임	9,612	84,970	22,964,221	8,394,003	253,765
방송	1,155	52,597	25,402,196	1,047,219	65,758
광고	6,639	74,616	19,419,770	337,693	108,959
전체	97,856	509,945	112,957,698	11,732,988	771,694

- ※ 1) ‘갑’국의 콘텐츠 산업 분야는 제시된 7개로만 구성됨.
2) 무역수지 = 수출액 - 수입액

<보고서>

2025년 ‘갑’국의 콘텐츠 산업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① 음악과 출판의 사업체 수 합이 전체 사업체 수의 70 % 이상을 차지하였다. 특히 출판은 종사자 수가 가장 많아 핵심 분야로 자리매김하였다. ② 매출액이 가장 큰 분야는 방송으로 사업체당 매출액 역시 가장 컸다.

다만, ③ 수출액은 게임이 방송의 8배 이상으로 콘텐츠 산업 전체 수출액의 70 % 이상을 기록하여 ‘갑’국의 수출 전략산업으로서 게임의 입지를 증명하였다. ④ 수입액이 가장 큰 분야인 출판은 콘텐츠 산업 내에서 수출액 순위와 무역수지 순위가 동일하였다.

콘텐츠 산업의 전체 수출액은 전체 매출액의 10 % 이상을 차지하여 해외 매출의 비중이 작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⑤ 매출액 대비 수출액 비중은 가장 큰 분야와 가장 작은 분야의 차이가 35%p 이상이었다.

23. 다음 <표>는 2024년 ‘갑’국의 기관유형별 국내특허, 해외특허 및 디자인 현황에 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표 1> 기관유형별 국내특허 현황
(단위: 개, 건, %)

기관유형	구분	기관수	보유건수	활용건수	수익발생건수	활용률	수익발생비율
국공립대학		40	35,444	9,478	5,493	()	58.0
사립대학		168	60,985	10,319	7,494	()	()
정부출연연구기관		21	36,149	17,742	10,514	49.1	()
공공기관		47	12,139	3,732	2,032	30.7	54.4

<표 2> 기관유형별 해외특허 현황
(단위: 개, 건, %)

기관유형	구분	기관수	보유건수	활용건수	수익발생건수	활용률	수익발생비율
국공립대학		40	6,161	2,312	689	()	29.8
사립대학		168	9,594	1,358	788	()	58.0
정부출연연구기관		21	13,569	6,950	4,932	51.2	71.0
공공기관		47	1,065	232	90	21.8	38.8

<표 3> 기관유형별 디자인 현황
(단위: 개, 건, %)

기관유형	구분	기관수	보유건수	활용건수	수익발생건수	활용률	수익발생비율
국공립대학		40	1,493	119	99	()	83.2
사립대학		168	3,231	282	242	()	()
정부출연연구기관		21	1,030	194	130	18.8	67.0
공공기관		47	325	24	22	7.4	()

※ 1) ‘갑’국의 기관유형은 ‘국공립대학’, ‘사립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 ‘공공기관’으로만 구분함.

2) 활용률(%) = $\frac{\text{활용건수}}{\text{보유건수}} \times 100$

3) 수익발생비율(%) = $\frac{\text{수익발생건수}}{\text{활용건수}} \times 100$

- ① 국내특허 보유건수와 해외특허 보유건수의 합은 ‘사립대학’이 ‘국공립대학’의 2배 이상이다.
- ② 국내특허, 해외특허, 디자인 각각에서 ‘국공립대학’의 활용률이 ‘사립대학’의 활용률보다 높다.
- ③ 국내특허의 수익발생비율로 기관유형을 비교하면 ‘사립대학’이 가장 높다.
- ④ 디자인의 수익발생비율이 90 % 이상인 기관유형은 2개이다.
- ⑤ 해외특허 활용률이 높은 기관유형일수록 해외특허 수익발생비율도 높다.

24. 다음은 2020 ~ 2024년 ‘갑’국의 관광수입 및 관광지출에 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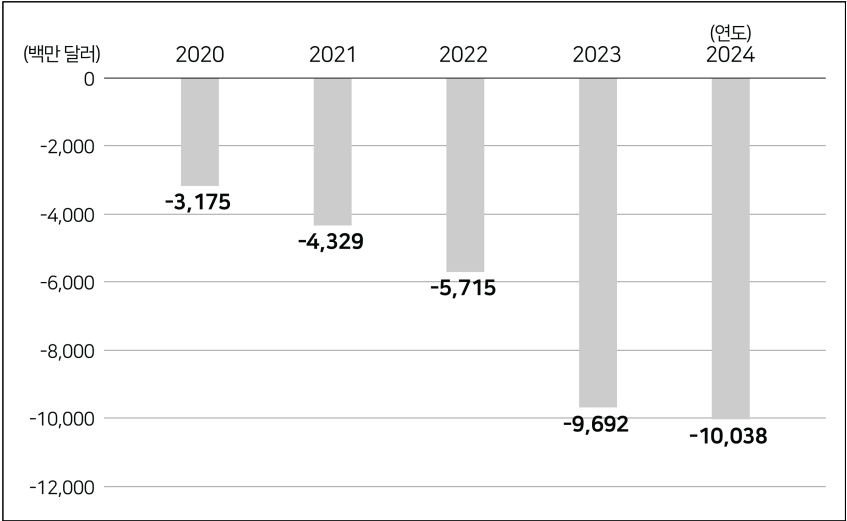
<표> 2020 ~ 2024년 관광수입 및 관광지출
(단위: 백만 달러, 달러/명)

연도	구분	관광수입	1인당 관광수입	관광지출	1인당 관광지출
2020		10,181	4,041	13,356	3,123
2021		10,622	10,985	()	12,229
2022		12,240	3,827	17,955	2,739
2023		15,065	1,365	()	1,089
2024		16,454	1,005	26,492	923

※ 1) 1인당 관광수입(달러/명) = $\frac{\text{관광수입}}{\text{‘갑’국 방문 외래관광객 수}}$

2) 1인당 관광지출(달러/명) = $\frac{\text{관광지출}}{\text{외국 방문 ‘갑’국민관광객 수}}$

<그림> 2020 ~ 2024년 관광수지



※ 관광수지 = 관광수입 - 관광지출

<보 기>

- ㄱ. 관광수입과 관광지출은 매년 증가하였다.
- ㄴ. 관광수입의 전년 대비 증가율이 가장 높은 해에 관광지출의 전년 대비 증가율도 가장 높다.
- ㄷ. 2021년 ‘갑’국 방문 외래관광객 수의 전년 대비 감소율은 60 % 이하이다.
- ㄹ. 2022년 외국 방문 ‘갑’국민관광객 수는 ‘갑’국 방문 외래관광객 수의 3배 이상이다.

- ① ㄱ, ㄴ
- ② ㄱ, ㄹ
- ③ ㄷ, ㄹ
- ④ ㄱ, ㄴ, ㄷ
- ⑤ ㄴ, ㄷ, ㄹ

25. 다음 <표>는 주요 10개국의 2024 파리 올림픽 참가선수 인원, 메달 수 및 순위에 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표> 주요 10개국의 2024 파리 올림픽 참가선수 인원, 메달 수 및 순위
(단위: 명, 개)

구분 국가	참가 선수	메달				순위	
		금	은	동	합계	금메달 기준	메달 합계 기준
미국	623	40	44	42	126	1	1
중국	398	40	27	24	91	1	()
일본	431	20	12	13	45	3	()
호주	476	18	19	16	()	4	()
프랑스	601	16	26	22	()	5	()
네덜란드	283	15	7	12	34	6	()
영국	343	14	22	29	65	7	()
대한민국	144	13	9	10	()	8	()
이탈리아	402	12	13	15	40	9	()
독일	458	12	13	8	()	9	()

- ※ 1) 금메달(메달 합계) 기준 순위는 제시된 10개 국가만으로 정함.
2) 금메달(메달 합계) 기준 순위는 금메달(메달 합계) 수가 많은 국가부터 순서대로 정하되, 금메달(메달 합계) 수가 동일한 국가들은 공동 순위를 부여함.
3) 금메달 획득률(%) = $\frac{\text{금메달 수}}{\text{참가선수 인원}} \times 100$

<보 기>

ㄱ. 대한민국은 금메달 기준 순위가 메달 합계 기준 순위보다 높다.

ㄴ. 금메달 기준 순위와 메달 합계 기준 순위가 동일한 국가는 2개국이다.

ㄷ. 금메달 획득률은 미국이 이탈리아의 2배 이상이다.

ㄹ. 호주의 메달 합계 중 금메달 수가 차지하는 비중은 독일의 메달 합계 중 금메달 수가 차지하는 비중보다 크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26. 다음 <표>는 ‘갭’ 음악방송의 2025년 9월 2주차 음악차트에 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표> ‘갭’ 음악방송의 2025년 9월 2주차 음악차트
(단위: 점)

순위	음원	가수	디지털 점수	방송 점수	투표 점수	음반 점수	SNS 점수	총점
1	XO	Weve	1,254	5,007	1,105	4,812	()	12,328
2	기념식	방황아	261	1,814	2,000	3,116	379	()
3	걸어(WALK)	WHITEPINK	()	0	350	0	652	3,807
4	PURPLE!	미아	6	2,728	0	0	9	2,743
5	Fame	온종일	()	14	0	64	66	2,623
6	Breathing	우주	2,152	()	0	0	20	2,192
7	깔끔한 휴일	맘바	1,705	0	0	4	163	1,872
8	사랑 침병	슬픔	33	1,816	1	0	0	()
9	나에게 닿기를	100KM	1,690	14	100	0	25	()
10	우리 플래시	맘바	1,534	0	0	0	()	1,699
11	Crash Along	키디	1,534	0	0	0	()	1,534

- ※ 1) 총점 = 디지털 점수 + 방송 점수 + 투표 점수 + 음반 점수 + SNS 점수
2) 순위는 총점이 높은 음원부터 순서대로 정함.
- ① 총점은 ‘기념식’이 ‘걸어(WALK)’의 2배 이상이다.
② SNS 점수는 ‘우리 플래시’가 ‘XO’보다 높다.
③ 디지털 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순위를 다시 정한다면, ‘걸어(WALK)’는 2위가 된다.
④ ‘나에게 닿기를’의 투표 점수만 150점으로 변경된다면, ‘나에게 닿기를’은 8위가 된다.
⑤ 방송 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순위를 다시 정한다면, ‘Breathing’은 5위가 된다.

27. 다음 <표>는 2024년과 2025년 ‘갑’국의 농식품 및 농산업 수출액에 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표> 2024년과 2025년 농식품 및 농산업 수출액
(단위: 백만 달러, %)

수출품목 \ 연도	2024	2025	전년 대비 증가율
합계	6,221.4	6,665.7	7.1
농식품	4,765.2	5,163.7	8.4
가공식품	4,034.4	()	()
라면	590.2	731.7	24.0
과자	354.2	372.2	5.1
음료	325.8	343.0	5.3
쌀가공식품	136.5	139.0	1.8
기타	2,627.7	2,861.6	8.9
신선식품	730.8	()	-2.0
농산업	()	1,502.0	()
농기자재	1,333.8	1,400.2	5.0
농기계	()	660.0	5.0
비료	207.6	()	7.0
농약	()	490.2	20.0
종자	23.9	27.3	14.2
기타	65.2	0.6	-99.1
동물용의약품	10.8	67.2	()
기타	111.6	34.6	-6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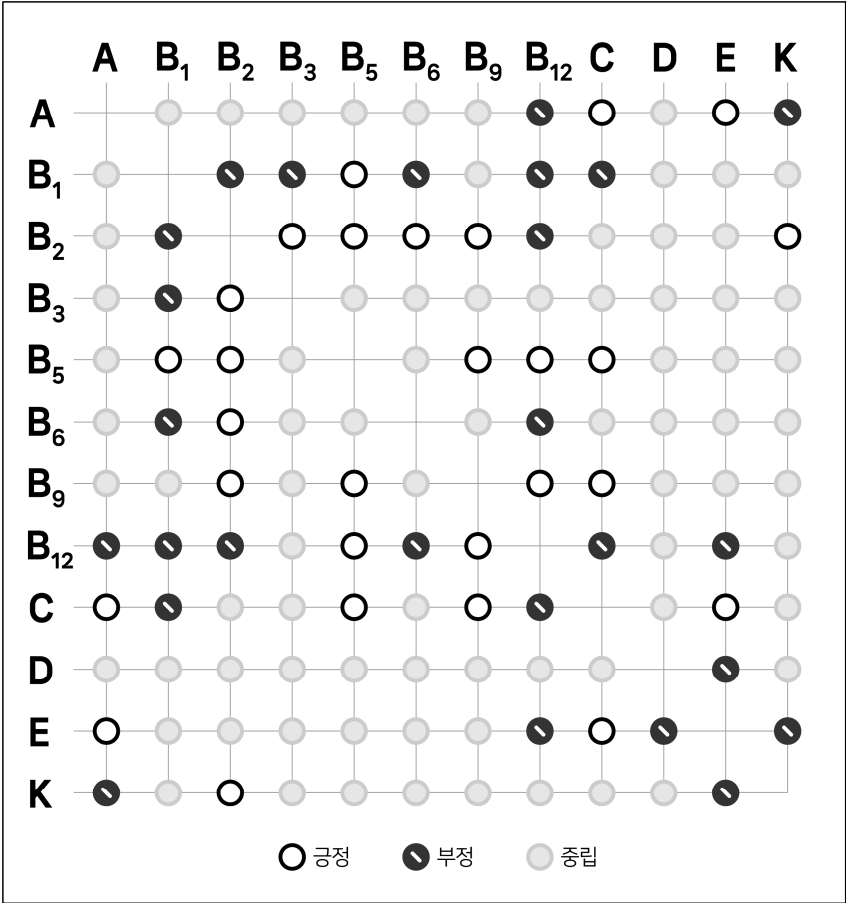
<보 기>

- ㄱ. 전년 대비 2025년 수출액 증가율은 가공식품이 농기자재보다 높다.
- ㄴ. 2024년 농약 수출액은 400백만 달러 미만이다.
- ㄷ. 전년 대비 2025년 수출액 증가폭은 라면이 농기계의 4배 이상이다.
- ㄹ. 2025년 농산업 수출액에서 비료와 동물용의약품 수출액의 합이 차지하는 비중은 15 % 미만이다.

- ① ㄱ, ㄷ
- ② ㄱ, ㄹ
- ③ ㄴ, ㄷ
- ④ ㄷ, ㄹ
- ⑤ ㄱ, ㄴ, ㄹ

28. 다음은 ‘갑’연구자가 제시한 주요 비타민 간 상호작용과 비타민 조합의 효과 지수에 관한 자료이다. 이에 근거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그림> 주요 비타민 간 상호작용



※ 비타민 간 상호작용은 서로 다른 두 비타민 사이에서만 발생함.

<정 보>

- 비타민 조합의 효과 지수 = 조합에 포함된 비타민 수 + (1) × ‘긍정’ 상호작용 쌍의 수 + (-2) × ‘부정’ 상호작용 쌍의 수
- 예를 들어, (A, B₁, B₂) 비타민 조합에서 상호작용이 발생하는 쌍은 (A, B₁), (A, B₂), (B₁, B₂)이며, 그중 ‘긍정’ 상호작용 쌍은 없고 ‘부정’ 상호작용 쌍은 (B₁, B₂)이며 ‘중립’ 상호작용 쌍은 (A, B₁), (A, B₂)이므로, (A, B₁, B₂) 비타민 조합의 효과 지수는 3 + (1) × 0 + (-2) × 1 = 1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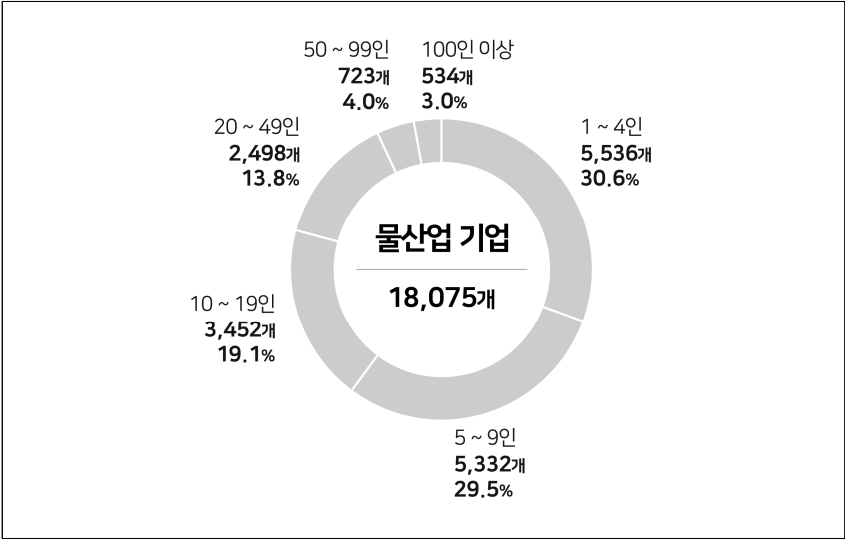
<보 기>

- ㄱ. 비타민 B₂는 주요 비타민 중 ‘긍정’ 상호작용이 발생하는 비타민 수와 ‘부정’ 상호작용이 발생하는 비타민 수의 차이가 가장 크다.
- ㄴ. (B₂, B₉, K) 비타민 조합의 효과 지수는 5이다.
- ㄷ. (B₃, B₅, B₁₂, E) 비타민 조합의 효과 지수는 (B₃, B₅, E) 비타민 조합의 효과 지수보다 크다.

- ① ㄱ
- ② ㄴ
- ③ ㄷ
- ④ ㄴ, ㄷ
- ⑤ ㄱ, ㄴ, ㄷ

29. 다음은 2025년 ‘갑’국 물산업 기업의 종사자 규모와 교육수요분야 설문조사 결과이다. 이를 근거로 <그림 2>의 교육수요분야 A와 B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그림 1> 물산업 기업의 종사자 규모에 따른 기업 수와 구성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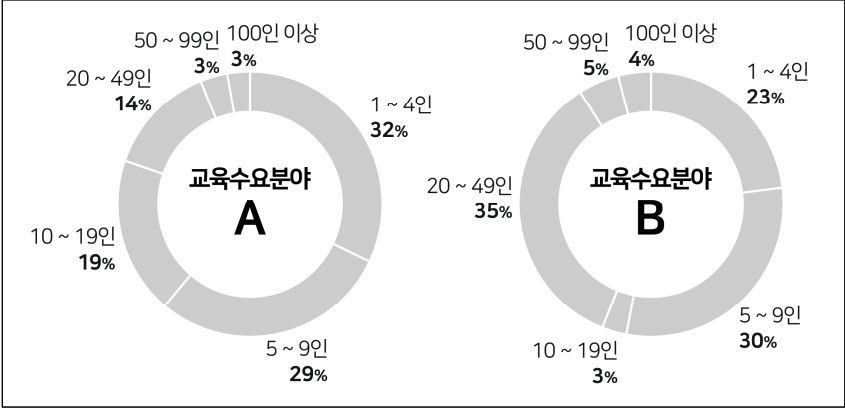


<표> 물산업 기업의 종사자 규모별 교육수요분야 응답 비율 (단위: %)

종사자 규모	교육수요분야	현장실무	안전환경	기술이론	경영	어학	합
전체		54.7	27.3	16.1	1.7	0.2	100
1 ~ 4인		57.3	34.6	6.8	1.3	0.0	100
5 ~ 9인		53.9	25.8	18.6	1.7	0.0	100
10 ~ 19인		54.8	21.1	23.4	0.3	0.4	100
20 ~ 49인		53.9	22.8	18.6	4.3	0.4	100
50 ~ 99인		45.1	26.6	25.2	1.9	1.2	100
100인 이상		51.5	27.2	18.7	2.2	0.4	100

※ 각 물산업 기업은 ‘현장실무’, ‘안전환경’, ‘기술이론’, ‘경영’, ‘어학’ 중 1개 교육수요분야만 응답함.

<그림 2> 교육수요분야를 A, B로 응답한 물산업 기업의 종사자 규모에 따른 구성비



- A
- B
- ① 경영

기술이론
- ② 안전환경

경영
- ③ 안전환경

어학
- ④ 현장실무

경영
- ⑤ 현장실무

기술이론

30. 다음 <그림>은 2026년 1월 1일 ‘갑’국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된 A 사무관이 제출한 36개월 동안의 경력내용별 경력기간이고, <표>는 주요 경력내용에 대한 경력환산표이다. 이를 근거로 계산한 A 사무관의 환산경력기간이 25개월일 때, (나)에 해당하는 A 사무관의 지방공무원 임용시기는?

<그림> A 사무관의 경력내용별 경력기간

	기간제 교원	주식회사 직원	지방공무원	공공단체 직원
임용(입사)시기	2023년 1월	2023년 11월	(나)	2025년 3월
퇴직(퇴사)시기	2023년 10월	(가)	2025년 2월	2025년 12월

- ※ 1) A 사무관의 경력내용은 제시된 4개뿐임. 경력기간은 겹치지 않으며, 경력 공백은 없음.
- 2) A 사무관의 각 임용(입사)시기는 해당 월 1일이고 각 퇴직(퇴사)시기는 해당 월 말일임.
- 3) 경력내용별 경력기간은 개월 수로 산정함. 예를 들어, A 사무관의 ‘기간제 교원’ 경력기간은 2023년 1월부터 2023년 10월로 10개월임.

<표> 주요 경력내용에 대한 경력환산표 (단위: %)

경력내용	환산율
기간제 교원	100
지방공무원	100
공공단체 직원	50
주식회사 직원	40

※ 환산경력기간은 경력내용별 경력기간과 해당 환산율을 곱한 값의 합을 소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 값임.

- ① 2024년 7월
- ② 2024년 8월
- ③ 2024년 9월
- ④ 2024년 10월
- ⑤ 2024년 11월

[31 ~ 32] 다음은 A 리조트의 객실 요금 및 관광 상품 가격에 관한 자료이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표 1> A 리조트의 객실 요금
(단위: 명, 원/박)

객실등급\구분	기준 인원	최대수용 인원	회원 여부	숙박 요일		
				일요일	월요일 ~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소담	2	4	회원	70,000	86,000	91,000
			비회원	80,000	100,000	120,000
버금	5	8	회원	130,000	160,000	168,000
			비회원	150,000	180,000	240,000
으뜸	4	4	회원	300,000	300,000	360,000
			비회원	360,000	360,000	400,000

- ※ 1) 기준 인원 이하의 인원이 숙박할 경우 숙박 요금은 객실 요금임.
2) 기준 인원 초과 1인당 추가 숙박 요금은 1박당 15,000원임.
3) 기준 인원을 초과하여 숙박할 경우, 숙박 요금은 객실 요금과 추가 숙박 요금의 합임.

<표 2> A 리조트의 관광 상품 정상 가격과 패키지 상품 가격

관광 상품\구분	정상 가격 (원/명)	패키지 상품 가격 (원)
동굴	8,000	102,000
단풍 유람선	15,000	116,000
나루 유람선	17,000	120,000

- ※ 1) 패키지 상품은 ‘소담’ 객실에서 금요일 또는 토요일에 숙박하는 회원에게만 적용됨.
2) 패키지 상품 가격으로 기준 인원이 객실 1박 숙박과 관광 상품을 함께 이용할 수 있음.
3) 기준 인원을 초과하여 패키지 상품을 이용하는 경우, 초과 1인당 추가 숙박 요금 15,000원과 관광 상품 정상 가격을 패키지 상품 가격과 별도로 지불해야 함.

31. 위 <표>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보 기>

ㄱ. 회원 2명의 금요일 ‘소담’ 1개실 숙박 요금은 비회원 3명의 일요일 ‘소담’ 1개실 숙박 요금보다 비싸다.


ㄴ. 회원 6명의 금요일 ‘소담’ 2개실 숙박 요금은 비회원 6명의 화요일 ‘버금’ 1개실 숙박 요금보다 비싸다.

ㄷ. 회원 7명이 토요일에 객실 2개실에 숙박할 때 가장 비싼 숙박 요금과 가장 저렴한 숙박 요금의 차이는 470,000원 이상이다.

- ① ㄱ
②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32. 다음 <대화>는 A 리조트 상품에 관한 고객과 직원의 대화 내용이다. 위 <표>를 근거로 판단할 때, <대화>의 내용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대 화>



직원: 안녕하세요? A 리조트 고객상담센터 이서정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고객: 안녕하세요. A 리조트 패키지 상품에 대해 몇 가지 문의드리려고 합니다. 회원 2명이 금요일에 ‘단풍 유람선’ 패키지 상품을 이용하려면 어느 정도 비용을 지불해야 할까요?
직원: 116,000원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고객: 기준 인원을 초과할 때는 어떻게 되나요?
직원: 예를 들어, ㉠ 회원 3명은 금요일에 146,000원으로 ‘단풍 유람선’ 패키지 상품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고객: 회원 8명이 금요일에 1박하고 ‘나루 유람선’ 관광을 하려고 할 때 가장 저렴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직원: ㉡ 가장 저렴한 방법은 ‘나루 유람선’ 패키지 상품을 이용하는 것이고 비용은 368,000원입니다.
고객: 그렇군요. 그러면 회원 2명이 일요일 ‘소담’ 객실에서 1박하면 패키지 상품을 이용할 수 있나요?
직원: 아니요, 일요일에는 패키지 상품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고객: 패키지 상품을 이용할 수 없으면 객실 요금과 관광 상품 정상 가격을 각각 지불해야 하는 건가요?
직원: 네, 맞습니다. 예를 들어, ㉢ 회원 2명이 일요일에 ‘소담’ 객실에서 1박하고 ‘동굴’ 관광 상품을 이용한다면, 86,000원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 ① ㄱ
② ㄴ
③ ㄷ
④ ㄱ, ㄷ
⑤ ㄱ, ㄴ, ㄷ

33. 다음 <표>는 2019 ~ 2023년 우리나라 의료기기 업체의 생산액 규모별 및 종사자 규모별 업체 수에 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표 1> 2019 ~ 2023년 생산액 규모별 업체 수
(단위: 개)

생산액 규모 연도	전체	1억 원 미만	1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	1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50억 원 이상 100억 원 미만	100억 원 이상
2019	3,570	1,932	916	471	132	119
2020	3,887	2,203	934	480	134	136
2021	4,085	2,296	1,004	485	128	172
2022	4,176	2,351	994	515	136	180
2023	4,223	2,378	997	534	144	170

<표 2> 2019 ~ 2023년 종사자 규모별 업체 수
(단위: 개)

종사자 규모 연도	전체	20명 미만	20명 이상 50명 미만	50명 이상 100명 미만	100명 이상 200명 미만	200명 이상
2019	3,570	2,894	419	153	65	39
2020	3,887	3,092	467	186	90	52
2021	4,085	3,230	511	192	95	57
2022	4,176	3,292	518	214	87	65
2023	4,223	3,309	567	190	89	68

<보 기>

- ㄱ. 2021년은 생산액 규모가 ‘1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업체 생산액 합이 생산액 규모가 ‘1억 원 미만’인 업체 생산액 합의 2배 이상이다.
- ㄴ. 종사자 규모가 100명 이상인 업체 수는 매년 전체 업체 수의 2 % 이상이다.
- ㄷ. 2019년은 종사자 규모가 ‘20명 미만’인 업체 생산액 합이 1,300억 원 이상이다.

- ① ㄱ
- ② ㄴ
- ③ ㄷ
- ④ ㄱ, ㄴ
- ⑤ ㄱ, ㄴ, ㄷ

34. 다음 <표>는 ‘갑’지역의 장래 인구 추계에 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표> 장래 인구 추계
(단위: 명)

구분	연도	2020	2030	2040
유소년인구 (14세 이하)		197,327	()	144,898
생산가능인구 (15 ~ 64세)		1,156,237	1,091,970	911,029
고령인구 (65세 이상)		277,236	397,080	609,573
총인구		1,630,800	()	1,665,500

※ 1) 총부양비 = $\frac{\text{유소년인구} + \text{고령인구}}{\text{생산가능인구}} \times 100$

2) 고령화지수 = $\frac{\text{고령인구}}{\text{유소년인구}} \times 100$

<보 기>

- ㄱ. 2030년 총부양비는 36 이상이다.
- ㄴ. 고령화지수는 2040년이 2020년의 2.5배 이하이다.
- ㄷ. 2030년 유소년인구가 총인구의 10 %라면 고령화지수는 250 이상이다.
- ㄹ. 2030년 유소년인구가 2020년과 동일하다면, 총부양비는 2030년이 2020년보다 높다.

- ① ㄱ, ㄹ
- ② ㄴ, ㄷ
- ③ ㄴ, ㄹ
- ④ ㄱ, ㄴ, ㄷ
- ⑤ ㄱ, ㄷ, ㄹ

[35 ~ 36] 다음 <표>는 ‘갑’국 A ~ E 지역의 주택 보급 및 소유 현황에 관한 자료이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표 1> A ~ E 지역의 주택 보급 현황
(단위: 가구, 호, %)

구분 지역	가구수	주택수						주택 보급률
		아파트	단독 주택	다가구 주택	연립 주택	다세대 주택	기타	
A	39,492	28,104	10,343	895	1,656	1,182	694	116.3
B	30,685	8,319	19,862	950	1,549	786	692	109.4
C	30,225	15,148	13,184	881	1,603	934	597	120.1
D	19,175	6,024	13,079	923	1,979	1,163	510	129.2
E	17,365	5,437	9,224	269	999	1,108	476	103.4

- ※ 1) 주택보급률(%) = $\frac{\text{‘주택수’} - \text{‘다가구주택’} + \text{구분거처수}}{\text{‘가구수’}} \times 100$
- 2) 구분거처수는 ‘다가구주택’ 1호에 독립적으로 생활하는 가구의 수임.
예를 들어, ‘다가구주택’ 1호에 5가구가 독립적으로 생활한다면 구분거처수는 5임.

<표 2> A ~ E 지역의 주택 소유 현황
(단위: 가구, 호)

구분 지역	가구수	주택소유 가구수	주택수	개인소유 주택수	타지역 거주자소유 주택수	
					해당지역 거주자소유 주택수	타지역 거주자소유 주택수
A	39,492	23,335	41,979	32,472	26,089	6,383
B	30,685	19,740	31,208	27,802	21,092	6,710
C	30,225	17,778	31,466	25,726	20,614	5,112
D	19,175	12,298	22,755	19,804	13,106	6,698
E	17,365	10,266	17,244	13,057	10,904	2,153

※ 가구주택소유율(%) = $\frac{\text{‘주택소유가구수’}}{\text{‘가구수’}} \times 100$

35. 위 <표>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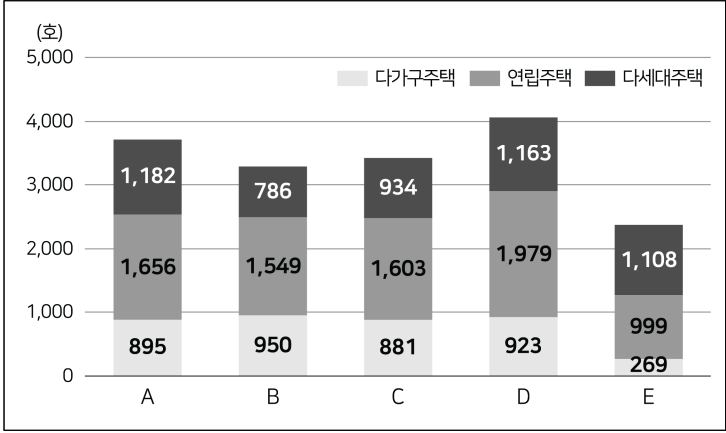
- <보 기>
- ㄱ. ‘아파트’ 대비 ‘단독주택’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B이다.
- ㄴ. C 지역의 구분거처수는 5,500 이상이다.
- ㄷ. A ~ E 지역 모두 ‘주택수’ 중 ‘해당지역 거주자소유 주택수’가 차지하는 비중은 60 % 이상이다.

- ① ㄱ
- ② ㄷ
- ③ ㄱ, ㄴ
- ④ ㄴ, ㄷ
- ⑤ ㄱ, ㄴ, 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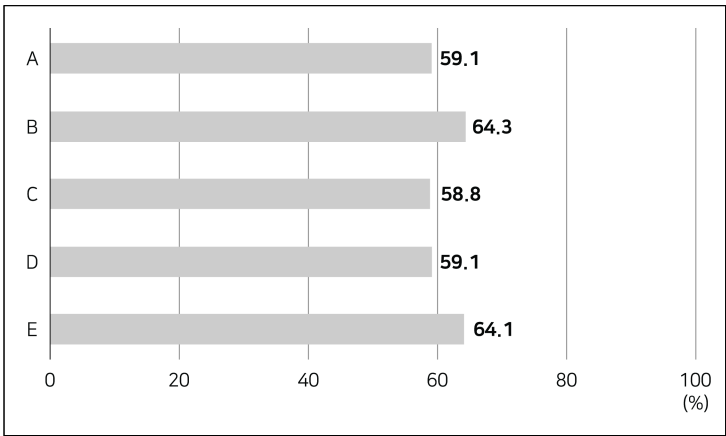
36. 위 <표>의 내용과 부합하는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보 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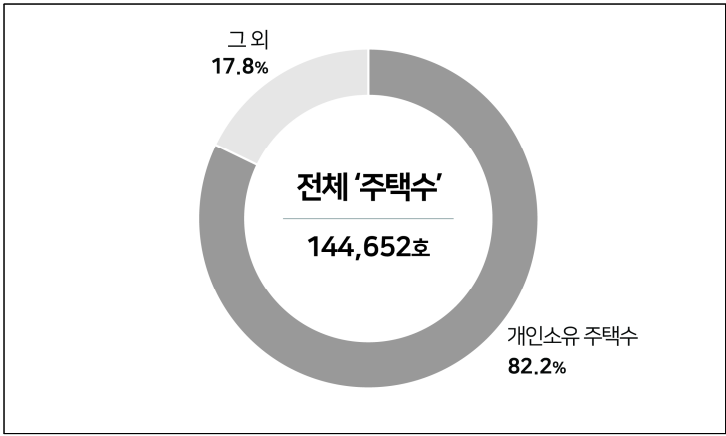
ㄱ. A ~ E 지역별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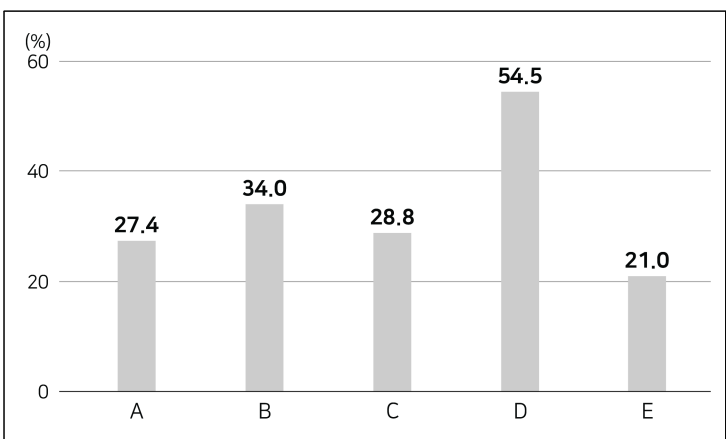
ㄴ. A ~ E 지역별 가구주택소유율



ㄷ. A ~ E 지역 전체 ‘주택수’ 중 ‘개인소유 주택수’ 비중



ㄹ. A ~ E 지역별 ‘해당지역 거주자소유 주택수’ 대비 ‘타지역 거주자소유 주택수’ 비율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ㄹ
- ④ ㄱ, ㄷ, ㄹ
- ⑤ ㄴ, ㄷ, ㄹ

37. 다음 <표>는 2025년 A ~ J 지역의 공영자전거 운영 현황이고, <보고서>는 A ~ J 지역 중 한 곳인 ‘갑’지역에 관한 것이다. 이를 근거로 판단할 때, 지역과 공영자전거 운영 방식을 바르게 짝지은 것은?

<표> 2025년 A ~ J 지역의 공영자전거 운영 현황
(단위: 개소, 대, 건, 건/대)

구분 지역	운영 방식	주차장 수	공영자전거 수	대여 실적	공영자전거 1대당 대여 실적
A	위탁	154	1,700	964,937	567.6
B	위탁	107	1,553	1,580,187	1,017.5
C	()	53	1,600	1,227,900	767.4
D	직영	44	458	160,133	349.6
E	()	27	424	213,070	502.5
F	직영	21	267	99,606	373.1
G	()	14	568	47,244	()
H	직영	13	130	60,117	462.4
I	()	11	514	62,570	()
J	()	3	493	392,633	()

※ 운영 방식은 직영과 위탁으로만 구분되며, A ~ J 지역 중 직영인 곳은 5개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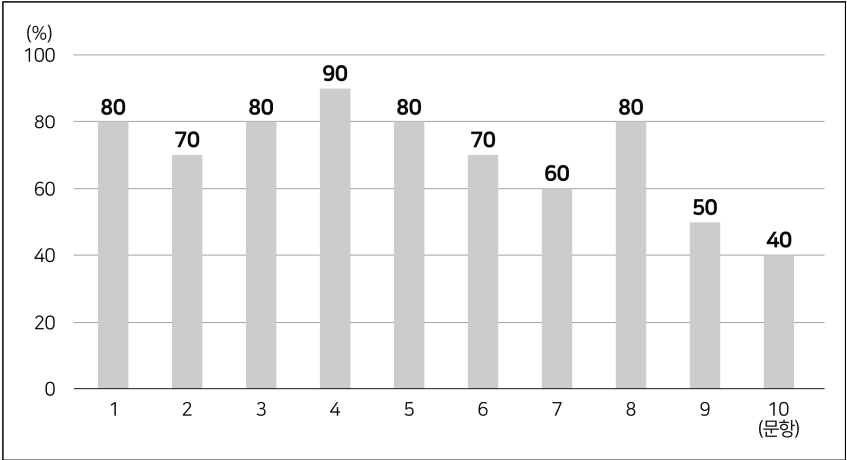
<보고서>

공영자전거를 직영으로 운영하는 ‘갑’지역은 2025년 주차장 1개소당 대여 실적이 5,000건 이상이었다. 운영 방식이 직영인 지역 중, ‘갑’지역은 공영자전거 수가 가장 많았지만 주차장 수는 가장 적었다. 한편, ‘갑’지역은 공영자전거 1대당 대여 실적이 100건 이상이었지만 운영 방식이 직영인 지역 중 가장 낮았다.

- ① C – 직영
- ② E – 직영
- ③ G – 직영
- ④ I – 위탁
- ⑤ J – 직영

38. 다음은 학생이 10명(A ~ J)인 ‘갑’반의 중간고사 문항별 정답률과 문항별 채점 결과를 나타낸 자료이다. 이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그림> ‘갑’반 학생 10명(A ~ J)의 문항별 정답률



※ 문항별 정답률은 ‘갑’반 학생 중 해당 문항을 맞힌 학생의 비율임.

<표> ‘갑’반 학생 10명(A ~ J)의 문항별 채점 결과
(단위: 점)

문항	배점	학생									
		A	B	C	D	E	F	G	H	I	J
1	2	○	○	×	○	×	○	○	○	○	○
2	2	○	○	×	×	○	×	○	○	○	○
3	2	×	○	○	○	○	○	○	○	()	()
4	2	○	○	○	○	○	○	○	○	()	()
5	2	×	○	×	○	○	○	○	○	○	○
6	3	×	○	○	○	○	×	○	○	()	()
7	3	○	○	×	○	×	○	×	×	○	○
8	3	○	○	○	○	○	○	○	×	()	()
9	3	×	○	×	○	○	×	×	×	()	()
10	3	○	×	×	○	○	×	○	×	()	()
점수		15	22	()	()	20	14	()	13	()	()

- ※ 1) 문항을 맞히면 ○, 틀리면 ×임.
- 2) 학생별 점수는 해당 학생이 맞힌 문항 배점의 합이고, 만점은 25점임.
- 3) 점수가 동일한 학생은 없음.

<보 기>

ㄱ. 학생 A의 점수는 ‘갑’반 학생 점수의 평균보다 높다.
ㄴ. 최고점을 받은 학생과 최저점을 받은 학생의 점수 차이는 13점이다.
ㄷ. 배점 2점인 문항을 모두 맞힌 학생은 4명이다.
ㄹ. 문항 10을 맞힌 학생 점수의 평균은 학생 G의 점수보다 높다.

- ① ㄱ, ㄷ
- ② ㄱ, ㄹ
- ③ ㄴ, ㄹ
- ④ ㄱ, ㄴ, ㄷ
- ⑤ ㄴ, ㄷ, ㄹ

39. 다음은 분류기 A ~ D를 사용하여 상품 1 ~ 10을 불량과 양호로 분류한 결과와 분류기별 성능 지표에 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표 1> 분류기별 상품 분류 결과

분류기 상품	A	B	C	D
상품 1	불량	불량	불량	불량
상품 2	양호	불량	양호	불량
상품 3	불량	양호	양호	양호
상품 4	불량	양호	불량	양호
상품 5	양호	불량	불량	불량
상품 6	양호	양호	양호	불량
상품 7	불량	불량	불량	양호
상품 8	불량	불량	양호	불량
상품 9	불량	불량	양호	양호
상품 10	양호	불량	불량	양호

<표 2> 분류기별 성능 지표값

분류기 성능 지표	A	B	C	D
정밀도	$\frac{1}{3}$	$\frac{3}{7}$	$\frac{3}{5}$	$\frac{2}{5}$
재현율	$\frac{2}{3}$	1	1	$\frac{2}{3}$

<정 보>

○ 분류표

(단위: 개)

실제 \ 분류 결과	불량	양호
불량품	진불량(TB)	위양호(FG)
양호품	위불량(FB)	진양호(TG)

- ※ 1) 진불량(TB): ‘불량’으로 분류된 실제 불량품 수
2) 진양호(TG): ‘양호’로 분류된 실제 양호품 수
3) 위불량(FB): ‘불량’으로 분류된 실제 양호품 수
4) 위양호(FG): ‘양호’로 분류된 실제 불량품 수

○ 정밀도 = $\frac{TB}{TB + FB}$

○ 재현율 = $\frac{TB}{TB + FG}$

○ 정확도 = $\frac{TB + TG}{TB + TG + FB + FG}$

<보 기>

- ㄱ. 분류기 A를 사용했을 때, ‘위불량(FB)’은 4개다.
ㄴ. 분류기 D의 ‘정확도’는 $\frac{1}{2}$ 이다.
ㄷ. 실제 불량품은 상품 1, 상품 5, 상품 7이다.

40. 다음 <표>는 주요 10개 농업지대별 2025년 3월 상순의 기상 자료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표> 주요 10개 농업지대별 2025년 3월 상순의 기상 자료
(단위: °C, mm, %, 시간)

구분 농업지대	최고기온	최저기온	강수량		일조시간	
	평년편차	평년편차	평년편차	평년대비	평년편차	평년대비
태백고냉	0.5	-1.6	35.8	225.2	-15.3	76.6
소백산간	0.4	2.2	22.4	246.4	-22.0	65.0
중북부내륙	1.2	1.8	9.9	185.3	-7.4	88.0
중부내륙	0.9	2.1	18.7	247.5	-14.2	75.2
호남내륙	0.2	1.9	-1.2	95.4	-22.8	62.9
영남분지	-0.7	1.5	5.9	132.6	-26.5	57.5
영남내륙	-0.8	2.3	10.0	150.3	-29.6	54.0
남서해안	0.7	1.9	11.2	147.1	-24.8	58.2
동해안중부	-0.8	0.6	28.5	255.7	-26.3	59.5
제주	1.0	1.9	35.3	202.6	-26.3	50.7

※ 1) 평년수치는 농업지대별 30년(1991 ~ 2020년) 동안의 각 연도 3월 상순 수치의 평균임.

2) 평년편차 = 2025년 3월 상순 수치 - 평년수치

3) 평년대비(%) = $\frac{2025년\ 3월\ 상순\ 수치}{평년수치} \times 100$

- ① 2025년 3월 상순의 최고기온이 평년수치보다 낮은 농업지대의 수는 높은 농업지대의 수보다 많다.
② 강수량 평년수치가 가장 큰 농업지대는 ‘태백고냉’이다.
③ 강수량 평년대비 값이 가장 큰 농업지대는 일조시간 평년대비 값이 가장 작다.
④ ‘영남분지’는 2025년 3월 상순의 강수량 대비 일조시간의 비가 강수량 평년수치 대비 일조시간 평년수치 비의 40 % 이하이다.
⑤ 2025년 3월 상순의 일조시간은 ‘제주’가 ‘영남내륙’보다 짧다.

- ① ㄱ
②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